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책' 지원 사업 이어져 책을 통해 정신의 허기 채운다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행복나눔재단 제공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책'을 통한 문화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 시청과 기업체의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아직 전국적인 규모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지원이 문화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일이다.

지난 7월 30일 춘천시에는 춘천 지역의 중·고교생 1,45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맞아하여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 경제 형편상 여가 문화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문화활동체험비'를 지원한 것이다.

춘천시청 주민생활지원국 이정녀 씨는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 사업은 전액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 2회에 걸쳐 연례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 시청의 문화활동체험비 지급이 문화상품권을 통한 독서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라면 행복나눔재단(이사장 조정남)의 문화 지원은 아이들에게 책을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SK그룹에서 후원하고 있는 '행복나눔재단'은 전국 6,000여 명의 결식 아동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지난달부터 도시락과 함께 책도 배달하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8월 16일 '맛있는 도시락, 행복한 책 읽기' 발대식을 가진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경기 남양주, 인천 동구, 서울 노원 등 10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방식은 매주 한 차례 도시락과 함께 책 3권을 배달해 주고 다음 주에는 그 책을 돌려받고 다른 책을 배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 사업에 필요한 약 3,000여 권에 달하는 책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조선일보가 펼치는 '거실을 서재로' 캠페인운동본부를 통해 창비, 웅진주



지난 8월 16일 전남 순천에서 있었던 '맛있는 도시락, 행복한 책 읽기' 발대식.

니어 등의 후원을 받았다. 행복나눔재단 전수현 과장은 "도시락 배달을 다녀보면 그 아이들의 육체적 배고픔 못지않게 정신적인 허기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면서 "학교의 추천도서도 쉽게 읽을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책을 1~2권만 읽을 수 있어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책 배달을 시작한 전남 순천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독서치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특별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독후감 쓰거나 책 읽어주기 등을 병행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만큼 인간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없다. 이런 지원 사업이 실효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 성과를 얻어 보다 적극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여가활동의 기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아이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보살피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한민**